

# 대한신경과학회보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2009. 5 • Vol. 80

05

May

2009



2009년 춘계평의원회 의결사항

**원로회원탐방**

오신중 선생님

**교실팀방**

가톨릭대학교 신경과학교실

**인물탐방**

전공의를 시작하며

전공의를 마치며

**Hot issue**

AOCCN 개최 후 소감

세계수면무호흡학회 개최 후 소감

**NeurOdyssey**

2009년도 통합학술대회 계획

각 위원회별 활동

지부동정

자학회동정

알림란

바로잡습니다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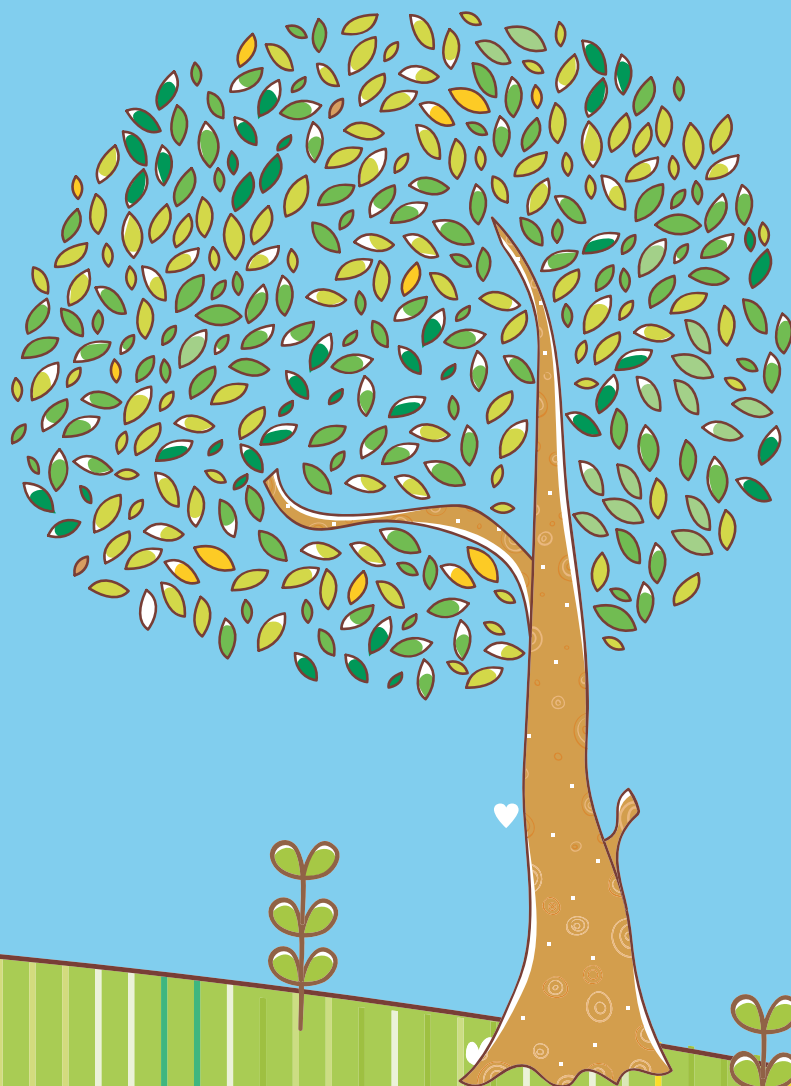
**대한신경과학회**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 2009

+ 대한신경과학회 임원명단

|       |                |
|-------|----------------|
| 회 장   | 하정상(영남의대)      |
| 부회장   | 이창훈(이창훈신경내과의원) |
| 이사장   | 이광우(서울의대)      |
| 부이사장  | 김주한(한양의대)      |
| 총무이사  | 박성호(서울의대)      |
| 보험이사  | 김영인(가톨릭의대)     |
| 재무이사  | 김지수(서울의대)      |
| 편집이사  | 허지희(연세의대)      |
| 홍보이사  | 박수철(연세의대)      |
| 고시이사  | 정진상(성균관대의대)    |
| 학술이사  | 김승현(한양의대)      |
| 기획이사  | 전범석(서울의대)      |
| 수련이사  | 박기덕(이화의대)      |
| 정보이사  | 성기범(순천향의대)     |
| 법제이사  | 박건우(고려의대)      |
| 국제이사  | 한설희(건국대의대)     |
| 무임소이사 | 김재우(동아의대)      |
| 무임소이사 | 조기현(전남의대)      |
| 무임소이사 | 김재문(충남의대)      |
| 무임소이사 | 안재훈(신구의원)      |
| 감 사   | 이동국(대구가톨릭의대)   |
| 감 사   | 권오상(중앙의대)      |
| 옹어위원장 | 이상암(울산의대)      |
| 간 사   | 조진환(서울의대)      |



# 대한신경과학회보

NO.80 2009.MAY



평의원회

## Contents

|                                             |    |
|---------------------------------------------|----|
| 2009년 춘계평의원회 의결사항                           | 04 |
| 원로회원탐방 원로 회원을 찾아서 - 오신중 선생님                 | 05 |
| 교실탐방 가톨릭대학교 신경과학교실                          | 07 |
| 인물탐방                                        |    |
| 전공의를 시작하며 차 성 이   부산의대 신경과학교실               | 10 |
| 김 동 은   전남의대 신경과학교실                         | 11 |
| 전공의를 마치며 허 영 은   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 13 |
| 김 치 현   성균관대의대 신경과학교실                       | 15 |
| Hot issue                                   |    |
| 아세아-오세아니아 임상신경생리학술대회 이 광 우   조직위원장          | 17 |
| 세계수면무호흡학회를 마치고 홍 승 봉   2009 세계수면무호흡학회 학술위원장 | 20 |
| NeurOdyssey 박 지 욱   제주 박지욱신경과의원             | 23 |
| 2009년도 통합학술대회 계획                            | 25 |
| 각 위원회별 활동                                   | 26 |
| 지부동정                                        | 29 |
| 자학회동정                                       | 31 |
| 알림란                                         | 33 |
| 바로잡습니다                                      | 35 |
| 회원동정                                        | 36 |



cover story :

신입전공의 입문교육 사진

발행인 | 이 광 우

편집인 | 박 성 호

발행처 | 대한신경과학회

주 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1층 11호

전 화 | (02)737-6530 팩 스 | (02)737-6531 이메일 | kna@neuro.or.kr 홈페이지 | www.neuro.or.kr

디자인·인쇄 | 도서출판 사이이알(02)2275-8603

발행일 | 2009. 5. 30.

# 대한신경과학회 2009년도 춘계평의원회 결정사항

2009년 5월 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춘계평의원회 안전심의 및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대한신경과학회 이사회의에서 상정한 수입예산 1,578,660,000원, 지출예산 1,513,060,000원으로 구성된 2009년도 회기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2. “대한신경과학회 산하 자학회 지원에 관한 규정(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 지원내용은 학술활동 지원, 행정업무 지원, 학술지 발간 등 재정지원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음.
3. 2008년도 대한신경과학회 춘계평의원회의에서 수련실태조사 기간을 종전의 7월-익년 6월에서 1월-12월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내용에 준하여 “수련실태조사기간 변경 시점”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2011년 신입전공의 선발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하였음.
4. 유당 명호진선생님 추모사업회로부터 접수된 “2009년도 제28차 대한신경과학회 학술대회에 고 명호진 선생님 추모강의 제정 요청(안)”에 관한 안건은 대한신경과학회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음.
5. 차기 임원진 인선이 있었으며, 차기 이사장에 김주한교수(한양대의), 차기 회장에 이병인교수(연세의대), 감사에 황연미 회원(개원)이 선출되었음.

2009. 5. 7.

총무이사 박 성 호  
이 사 장 이 광 우



# 원로 회원을 찾아서 - 오신중 선생님

지난 2008년 10월 9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강의로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오신 오신중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신경학의 선구자로서 또한 선진 신경학의 전수자로서 우리나라에 많은 제자를 두고 있는 자그마한 체구의 노학자는 아직도 형형한 눈빛에 힘이 넘치고 있었다.

함석 오신중 선생님, 이광우 이사장, 김주한 부이사장  
정리 및 사진 정재면, 조진환 교수



오신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건강은 좋아요. 시간이 되면 테니스를 즐깁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신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 간 것이 아니에요. 의예과 2학년이 되어야 의과대학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결심했지요. 본과에 가서는 미국 유학을 가느냐 서울대에서 계속 공부하느냐 결정하느라 2년이 걸렸어요. 그 당시 미국 유학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당시에는 전쟁 직후여서 참 가난하고 살기 어려웠어요. 휴가는 고사하고 돈이 없어 담배도 못했습니다. 2학년 때는 가정교사 하느라 해부학 시험에 재수를 하기도 했지요. 10대 시절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까요.

선생님께서 1960년도에 국립의료원에서 신경과수련을 시작하셨는데요. 국립의료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960년 4월 1일에 서울대병원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인턴들에게 주는 음식이 워낙 나빠서 환자 안보고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당시 병원장이신 내과 김동의 선생님께서 처벌한다고 하는 참에 4·19가 났지요. 워낙 부상자가 많아 1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일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후에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neurology 하는 곳이 국립의료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동안 오전 반 일만 보내달라고 해서 3년간 오전에는 국립의료원, 오후에는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국립의료원에는 박충서 교수와 스웨덴 의사 닥터 로리드 라슨이 있었지요. 한국에서 그 당시 3년 신경과 트레이닝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수련을 마친 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에 가시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힘든 점이 많았을 듯 합니다.

한국에서 3년간 neurology를 해서 사실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레지던트에 비해서 아는 것도 많았구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어클럽에 다닌 데다가 국립의료원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영어도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 시스템을 익히는 것이 힘들었지요. 국립의료원에서



는 혈관조영술을 방사선과에서 했는데, 미국에서는 3년차가 되면 혈관조영술의 60%를 하더군요.

수련을 마치고 미국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생활하시게 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어느 나라나 인종차별이 어느 정도는 있지요. 입장을 바꿔 놓는다면,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이 오히려 관대합니다. 다만 훌륭한 mentor가 아쉬웠지요. 예를 들어 내 논문 중 하나는 1978년에 발표되었는데, 실은 1972년에 썼던 것입니다. 리뷰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무명의 외국인이 쓴 논문이라 6년이나 걸린 거지요. 유명한 사람과 함께 썼다면 바로 발표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Mentor가 있으면 함께 쓰고 지도도 받고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 신경과 의사들을 많이 지도하셨지요?

모두 16명입니다. 대부분이 3~6개월의 단기연수이고요, 1년 연수한 사람들은 13명쯤 되네요. 김기환 교수는 나이가 비슷해서 펠로우라기 보다는 함께 일한 동료였지요.

앞으로 미국에 오고자하는 젊은 신경과 의사가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님을 유념해야 하지요.

미국에서 생활하신 지도 43년, 거의 50년을 사셨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불편하다기 보다 이제 완전히 미국식이 되었지요. 오래 살다보니 생각하는 것이 미국식으로 변해서 1990년대 초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등으로 나올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사람들의 생각과 어떻게 조화가 될지 걱정이 되더군요. 무엇이든 미국식으로 하고 한국식은 할 줄 모릅니다.

대한신경과학회가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학들과 학회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그만큼 발전했으니 신경과도 그만큼 좋아지고 발전했지요. 가슴 뿌듯합니다. 일본만 해도 electrophysiology 필드의 역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후학들에게 의사가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환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연구는 그 다음이지요,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신경과학교실

이번 대한신경과학회 회보에 소개할 교실은 가톨릭대학교 신경과학교실이다. 마침 탐방 날은 어버이날이어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뒤로하고 탐방에 나섰다. 여유를 가지고 서울성모병원으로 출발을 하였지만 역시 어버이날은 모든 사람이 부모님을 찾아가는 듯 가는 듯 길에는 자동차가 가득하였다. 신호를 무시하면서 달려갔지만 예상보다 30분 가량 늦어지고야 말았다. 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의국을 찾아 혈레벨떡 뛰어 들어가며 본 병원내부는 호텔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역시 새 병원의 웅장하고 산뜻함이 부러움을 가져다 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을 외치며 들어가니 이미 총무이사 박성호 교수님과 사진을 찍어주시는 정재면 교수님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이신 김영인 교수님과 양동원 교수님, 김중석 교수님이 한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평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궁금한 것이 많았고, 또 새로이 서울성모병원이 개원한 직후여서 많은 질문과 대화가 오고 갔고 필자는 열심히 녹음하며 정리하였지만 술 한잔의 위력(?)으로 탐방내용 정리를 포기하고 양동원 교수님에게 글을 부탁하고야 말았다. 탐방단이 질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의 글을 부탁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신경과학교실에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독자들에게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했고 필자의 예상은 적중한 듯 하다.

다음은 양동원 교수님의 가톨릭대학교 신경과학교실에 대한 소개의 글이다.

때~앵, 때~앵, 때~앵!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

...

외래를 보다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들으면 내 머리 속에는 ‘아 벌써 낮 12시가 되었구나. 아직도 봐야 할 환자가 20명이 남았네. 언제 다보고 점심을 먹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천주교 신자라면 잘 아시겠지만 위의 방송 내용은 천주교에서 아침 6시, 정오, 오후 6시에 종을 세 번 치면서 드리는 기도로 ‘삼종기도’라고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병원에서 듣는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가톨릭계 병원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부속 병원이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부속으로 되어있는 병원은 얼마 전에 개원한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하여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

모병원, 인천성모병원, 부천성가병원, 수원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및 성바오로병원 모두 8개이다. 이 중에서 성바오로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경과가 개설되어 있다. 8개 병원 중에서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가병원, 성바오로병원 등 다섯 개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병원으로 소속되어있다.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도 가톨릭이란 이름이 들어간 병원이 있는데 그 곳은 우리와는 소속이 다른 병원들이다. 이것은 가톨릭이 서울관구, 대구관구, 광주관구라는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위에서 언급한 8개의 병원은 모두 서울관구에 속해 있다.

혹자들은 내가 가톨릭병원에 근무한다고 하면 ‘가톨릭계 병원에 다니려면 신자여야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가톨릭의과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신자가 아니면 근무 시에 차별을 받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학생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무하는 20년간을 무교로 지냈으니까. 하지만 가톨릭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문화적으로 융화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근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톨릭 종교를 가지게 되는 분들이 많다. 가톨릭의 뜻은 ‘보편성’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추





구하는 것이 가톨릭의 정신이라고 보면 된다.

공식 병원 명칭을 영어식 발음인 ‘카톨릭’으로 쓰지 않고 ‘가톨릭’으로 사용하는 덕분에 가천결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병원 신경과 소개를 하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15년 뒤에나 (회보는 연구회인데 전국신경과학교실은 46개임)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대학교 신경과학교실은 1986년 9월 1일 김범생 교수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신경과 진료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1988년 3월 1기 전공의로 김영인 교수님(현 가톨릭대학교 신경과교실 주임교수)이 입국하면서 신경과가 정식으로 개설되어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였다. 1994년 4월 강남성모병원에 두 번째로 신경과를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개 병원에 신경과를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전체 스텝 수는 25명으로(정교수 3명, 부교수 5명, 조교수 11명, 임상조교수 2명, 임상강사 4명) 타 병원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하지만 개개의 병원으로 나누다 보면 한 병원에 임상조교수 이상의 정식 스텝이 4명 이상 되는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전공의는 연차 별로 3명씩을 뽑아(서울

성모병원 2명 여의도성모병원 1명)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을 순환하면서 근무하고 전체 전공의 수는 10명이다.

여러분들은 얼마 전 서울성모병원의 개원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했을 것이다. 서울성모병원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8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적 시설을 갖춘 기업 후원의 병원들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의료계에서는 치열한 무한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대학교수들과 재단측에서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재 도약하기 위해서는 작은 병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구조로는 안 되고 새로운 모병원의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마침내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얻고서 2005년 10월 7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운동장 부지에 새 병원 건설의 첫 삽질을 시작하였다. 병원 건설에 교황청의 허락이 굳이 있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병원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로부터 4년의 공사 기간과 5000억 원(건물 3000억, 장비 2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2009년 4월 30일 마



침내 지상 21층, 지하 6층, 연면적 19만 평방m, 1200병상의 규모를 갖춘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단일 병원 규모로는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서울성모병원이 건립되면서 이전의 '강남성모병원'이란 이름은 없어지고 가톨릭병원을 대표하는 '서울성모병원'이란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강남성모병원뿐 아니라 산하 8개 병원에서 스텝들을 뽑고 외부에서 유명한 분들을 영입하였으며 "You Believe! We car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여러분이 서울성모병원 정문을 들어서면 넓은 외래 진료로비를 보게 될 텐데 천장을 유리로 만들어 채광이 뛰어나고 자동으로 태양의 양을 조절하여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면서 온도 조절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벽을 타고 내리는 물을 이용한 폭포장식, 천정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모빌, 300여 마리 이상의 해수 열대어와 산호가 살고 있는 수족관은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시설들이다. 병원의 공기는 청정시스템을 통하여 걸러서 보내고 층간의 공기들이 서로 섞이지 않는 공기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입원실은 5인실이 최대로 각 병실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서 이전의 강남성모병원보다 획기적인 공간의 확충이 이루어져 쾌적한 병실 생활이 가능하다.

서울성모병원 3층 뇌신경센터 안에 위치하게 된 신경과는 수면다원검사실, 24시간 뇌파모니터링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뇌혈류검사실(Trans Cranial Doppler Sonography), 경동맥초음파검사실, 근전도실, 반복자기치료실(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사건유발전위검사실(Event Related Potential), 인지기능검사실을 외래 공간 내에 갖추어 외래진료실과 검사실을 같은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환자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반복자기치료기구는 최신의 neuronavigation system과 결합하여 환자의 뇌를 3D MRI 영상으로 추적하면서 정확한 뇌 국소 부위에 자기치료를 할 수 있어 뇌기능 연구와 여러 가지 신경계질환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128채널 사건유발전위검사장비와 컴퓨터분석기기를 도입하여 향후 뇌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향후 이 연구 결과를 신경영상자료와 결합하여 기능적신경영상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업적을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신경과학교실은 본교 출신의 졸업생만 고집하지 않고 국내 다른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을 전공의와 스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여러 대학들의 특징들이 녹아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스텝을 선발할 때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학문연구 수행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고 이들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탐구 정신과 연구 방법들을 수혈되어 경직된 분위기를 없애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얼마 전에 선종하신 한국의 대표적인 양심이자 정신적 지도자셨던 고 스테파노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지막 말씀이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였다. 참으로 소박하면서 인간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각막을 기증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 두 사람에게 빛을 볼 수 있게 하셔서 몸소 이 말씀을 실천하셨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 정신이야말로 다른 병원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톨릭 산하병원들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신을 어떻게 환자진료, 의학연구와 조화를 이루느냐는 평범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다음 9월 회보에는 강원대학교 신경과학교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신경과 전공의 교육을 다녀와서

■ 차 성 이 (부산의대 신경과학교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의 1년차가 되는 일은 인턴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소망이었다. 힘든 인턴생활을 하면서도 동기 인턴들과 시간 날 때마다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던 화두가 '어떠한 레지던트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모두들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목에 힘을 주어 자신의 꿈을 말하곤 했었다. 그런 터라 처음 신경과에 합격했을 때 떨어진 사람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는 희열이 더욱 컸다. 하지만 합격 후에 인턴으로서 신경과를 근무할 때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 응급실로 신경과 환자가 연이어 올 때마다 선배 년차 신경과 선생님들의 힘든 표정과 씻지도 못하고 응급실과 병동을 바쁘게 오고 가는 모습을 볼 때면 더럭 겁부터 나곤 했었다. 더군다나 밤새 환자를 보고 난 다음날 아침 초독 때면 전공의 선생님의 발표가 미흡할 때마다 교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을 보면서 전공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갔다.

그렇게 인턴생활이 끝나고 전공의생활의 시작에 앞서 신입 전공의 교육이 있어 동기 전공의인 서재득 선생님과 참석하게 되었다. 장소가 대전이고 각자 다른 학교의 신경과 전공의가 참석하는 자리다 보니 기대도 많이 되고 많이 배우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수업이 쉴 틈 없이 이어졌다. 배울 것은 많은데 2일간의 짧은 일정이라 여유 있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지 못한 것 같았다. 신경과 선생님들의 강의뿐만 아니라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의 강의와 예절 강의까지 프로그램이 무척 알차으나 전 날 당직을 서고 온 전공의가 많은 터라 곳곳에서 조는 모습이 보여 안타까웠다. 첫 날 수업이 끝나고 식사 및 회식 자리가 이어졌다. 이때 다른 학교의 전공의들과 인사도 나누고 대한신경과학회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선배님의 말씀도 들으며 앞으로 전공의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수련 받는 지역이 부산이다 보니 같은 지역인 고신대, 동아대에서 참석한 전공의와 인사하며 얼굴을 익히는 자리가 되어 신입전공의 교육이 앞으로 전공의들의 교류에 큰 도움을 주는 자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교육 둘째 날은 빠빡한 일정에 비해 한결 여유 있는 수업이 이어졌다. 내과 수업과 인사예절에 대한 수업도 좋았지만 stroke, vertigo, headache 등 신경과 임상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신경과 수업이 시작되자 다들 전날과 달리 눈을 빛내며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동안 수업내용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모습에서 신경과에 대한 열의와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

1박 2일간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내게는 전공의가 되면서 처음 참석한 자리라서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 사실 이런 모임은 다들 처음 참석해 보는지라 분위기도 좋았고 배움에 대한 의지도 남다르다고 느꼈으며 나 역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런 유익한 교육을 준비한 대한신경과학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다른 과와는 달리 신입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따로 있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전공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들어오게 될 신경과 후배들에게도 이러한 배움의 기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 신경과를 향한 나의 도전

■ 김 동 은 (전남의대 신경과학교실)



무슨 과를 해야 하지?

인턴이 끝나갈 무렵에 늘 평범한 아이로 다수의 결정을 믿고 따라 온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냉정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누구를 따라 할 수도, 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없는

나만의 선택이었다. 나름대로 적성, 전망, 수련과정 등 다양한 parameter를 적용해 며칠 밤을 새면서 고민해 보았지만 머릿속만 복잡해지고 답은 나오지 않았다. 시간에 쫓겨 결국 다수가 선택하는 과를 지원했었고 고배를 맞본 것이 어언 3년이 되었다. 3년이면 과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라 위안하며 군의관 생활을 시작했지만 과를 정하기는 커녕 꼭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였다.

평소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신경과 의사는 전 세계 어느 오지를 가더라도 '망치' 하 나면 질병의 localization이 가능하다는 친구의 말이 솔깃하게 들려왔다. 사실 인턴까지의 내 지식에 의하면 신경과는 '치료'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 조금 망설여졌지만 '진단'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가 또 있을까 싶었고 병명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병의 이름을 알게 해주고 경과를 알려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앞으로 연구할 영역도 무궁무진한 신경과에 대한 나의 도전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니 공부만 하면 되었는데, 2년여의 공백

은 무시할 수 없었다. 진도는 2년이 아닌 20년 전쯤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보는 듯 했고 꼭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압박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마지막 며칠은 불면증까지 생겼다. 영화 속 주인공이 사력을 다하고 최후를 맞으면서 하는 말 'enough'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스스로 되새겨 보았다.

시련은 마지막 면접에서도 있었다. 전공의 시험이야 그냥 본과 4학년 때 공부한 내용을 열심히 복습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면접시험은 전공에 관한 것을 조금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신경해부학 책을 폈다. 잊고 싶었던 수많은 tract들과 동물 얼굴을 연상케 하는 brain stem의 단면들, 그동안 내 무의식 속에 감추어 두었던 신경해부학의 아찔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지나갔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것을 정말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만 하다가 날을 새기 일쑤였다. 면접 당일에 같이 지원한 동기들은 강의록이나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무엇인가 외우고 있었지만 나는 머릿속이 하얀 상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불안하기만 하였다. 당연히 면접실에 들어가서도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지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게 지나갔고 정신을 차려 보니 면접은 끝나 있었다. 시험을 보고 나오니 합격에 대한 자신감은 간데없고 떨어지면 앞으로 1년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만 되기 시작했다.

합격발표 당일에 큰 기대 없이 받은 친구의 전화에서 '너 합격이야' 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에는 정말 날아갈 것만 같았다. 가끔 군의관 친구들 끼리 전공의 시험을 두고 '이거 무슨 조선시대 과거시험도 아니고 3년 만에 시험을 보는 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하며 투덜댔는데 정말 과거시험에 합격한 기분이 이런 것일까? 현역 선생님들은 절대 모르리라!

그때부터 처음 의대에 합격했던 순간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부모님은 이곳저곳 친지분들께 안부전화를 드리며 넋지시 합격 소식을 전하셨고 나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정말 아름다운 2008년의 겨울이 지나고 있었다. 먼저 입국한 선생님들은 합격한 당일만 웃고 앞으로 몇 년간은 울 일만 남았다고 하였지만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새해가 밝고 생소한 부분이 많은 신경과의 특성상 다른 과에 비해 일찍 과에 들어가 일을 배우면서야 비로소 슬슬 선배님들의 말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5월에 입국할 나와 다르게 아직은 인턴의 신분으로 주치의 일까지 맡아 보며 정신 없던 동기들이 잠에 허덕일 무렵에 신경과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의 공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잠이나 실컷 자고 오자.'며 우리 동기 3명은 내심 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며 일찍 재워 주시는 선배 년차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에 열심히 강의를 듣고 오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장소는 우연히도 정확히 3년 전 군의관 신체검사를 받을 때 묵었던 숙소 근처의 아드리아호텔로서 그때의 암울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예정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한 일행은 신경과 들어온 뒤 처음으로 함께 아침식사를 했고 조금 일찍 강의실에 들어섰다. 보통 때 같으면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해 뒷자리부터 채워주는 의대생의 센스를 보였겠지만 혹시 교수님이 보시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에 동기 3명은 당당히 맨 앞자리에 나란히 앉았고 강의는 시작되었다. 사실 작년 강의록을 보고 신경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겠거니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작년과 달리 법적 문제, 의료 윤리, 면담법 등 신경과 외적인 부분을 더 많이 다룬 것 같아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신경과는 앞으로 평생 해야 할 학문이지만 신경과

외의 강의는 앞으로 어디서든 듣기 힘든 강의라 생각해 알찬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녁 환영 만찬이 너무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넓게 보면 2009년 대한민국 신경과 1년차 동기들이고 앞으로 1년간 내가 신경과 전공으로서 느끼는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게 될 친구들인데 한 번의 소개도 없이 각 대학별로 밥만 먹고 이야기하다가 끝난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공의 입문교육이 끝나고 3월에 접어든 지금 동기 두 명은 주치의생활을 시작했고 나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가서 일을 배우며 5월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군에 있을 때 너무도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 환자와 대화하고 설명하는 일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 또 어렵게만 느껴졌던 anatomy도 임상과 연결시키면 그래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주치의 할 때 쯤이면 시간과 일에 쫓겨 환자 대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 많이 부족해지겠지만 지금의 각오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 마음을 다잡아 늘 발전하는 1년차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국에 있는 99명의 신경과 신입 1년차 모두 불의의 사고 없이 전공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포탄소리 요란한 탱크사격장에서 neuroanatomy를 탐독하고 있다.





# 전공의 시절의 회상과 나의 모습

■ 허영은 (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안녕하세요? 허영은 선생님이지? 대한신경과학회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핸드폰이 울린 건 저녁 여섯 시를 향해 느릿느릿 시계바늘이 옮겨가고 있는 늦은 오후 무렵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어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안타까운 그때를 어두한 방 안에서 혼자 뒹굴 거리고 있는 중이었다. 며칠째 서울은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를 것들로 온통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이나 명량한 이 목소리에 적잖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선생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응? 부탁.. 이라니..?

“대한신경과학회보에 선생님이 글을 써 줬으면 하는데요. 제목은 ‘전공의 생활을 마치며’구요. 이번에 끝나고 나가시는 전공의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뽑힌 이유는..” 대본을 읽어 내려가는 듯 미끄러지는 명량한 목소리는 내게 작은 변명조차 할 틈도 주지 않고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어느새 명량한 목소리는 끝이 나 있었다. 이제야야 막 해야 할 말들이 준비되었으나 이미 화면의 종료 버튼은 눌러진 상태였다.

선생님이.. 회보에.. 글을.. 대표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전공의를..

진정 ‘대한민국 대표 전공의’란 이름표를 달아 박물관에 진열해 두어야 할 사람들은 내 주변에만 한가득인 것이다. 하긴

여러 선생님들께서 나의 이 허접스런 전공의 생활을 아실 리가 만무하다. 더욱 불행한 사실은 나의 국어 실력마저도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보니 어느새 마지막이다. 내가 전공의라는 신분으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고작 두 주 남짓인 것이다. 당장 3월부터 시작되는 전임의 생활을 위해 조금은 귀찮고 현실적인 일들을 정리하는 데 이래저래 정신이 팔려 잊어버리고 있었나 보다.

흠.. 나의 전공의 생활이란.. 글썄..

‘타의 모범’이라든가 ‘귀감’ 등등의 단어들을 붙이기엔 아무리 너그럽게 보아도 수준 미달이다. 내 전공의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굳이 이야기해야 한다면 ‘다행이다’란 말이 어울릴 것 같다. 정말 다행이다. 무지하게 다행이다. 천만 다행스런 일인 것이다. 내가 그럭저럭 전공의 4년을 보내고 무사히 전문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휴우..” 하고 가슴을 쓸어 내릴 만큼 다행스런 일이다. 정말로 그런 것이다.

우주 전함 같은 병원 안에 신경과 의사라곤 나 하나뿐이던 일년차 당직이면 온 병동이며, 응급실이며, 운이 나쁜 날엔 다른 병원에서까지 신경과 당직을 찾아대는 통에 밤새 제대로 자리에 앉아 보지도 못한 채 아침 당직보고를 준비했던 게 매번이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들어간 당직보고에서는 ‘환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엉망이다’, ‘기본적인 처치가 잘못되었다’, ‘지금 환자를 죽일 셈이냐’며 애정과 근심 어린 충고들이 날아와 꽃히고, 그 즈음이면 잠을 못 자 부들부들 떨리던 양손은 딱딱하게 굳어져 억울한 마음마저 사-악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해서 는 분명 삼 개월 내로 갑작스레 죽게 되거나, 몸쓸 병에 걸릴 거라 확신했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 년을 그럭저럭 넘기고 연차가 올라가면서는 유행 지난 사춘기가 시작되는 통에,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라던가,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하고 애초에 정답 같은 건 없는 질문들에 답을 구하려 애쓰면서, 어리석은 내 마음을 헤치고, 주변 사람들까지 걱정하도록 만든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런 일이다. 정말이지, 나에게 있어 '전공의 생활을 마친다'라는 것은 지하철 패스를 전자인식기에 찍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처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난 특별한 취미를 가진 것도, 놀아줄 친구가 많은 것도 돌아 가야 할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신경과 전공의로서의 생활은 나의 하루 일과를 온전히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신경과 전공의의 허영은'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릴만한 틈은 거의 없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성실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 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은 없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그러하듯이 전공의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긴 흔적들은 대부분이 깊게 패이고 쓸려서 제대로 딱정이가 있을 새도 없이 늘 진물이 흐르는 채였다.

매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바닥 끝까지 좌절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나태해지고, 그렇게 참 많이 괴로웠나 보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큰 망설임 없이 앞으로만 내딛고 있는 주변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나도 서른이 넘고 이 동굴 같은 시기가 지나면 지금의 고민들과 방향도 조금은 정리가 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앞으로만 나아 갈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뿐이었다.

하지만 난 전공의 생활이 끝나가는 지금에도 그때와 비슷한 일을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흘리는 말에도 쉽게 흔들거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

다만, 지금의 이런 내 모습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많이 단단해지고 많이 고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러운 일이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고, 사회적으로도 권장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도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될 수 있어 나쁘지 않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이 되었건, 한심해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되었건 상관없이 예전의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위낙 글을 방만하게 쓰고 있다 보니 어느새 전임의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 되었다. 봄은 주저주저 망설이면서 신중하게 한발한발씩 내딛고 있는 모양으로 3월말의 햇볕으로 반짝거리는 탄천 언저리에까지 걸쳐져 있다. 나도 그 모양으로 여전히 주저하고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다. 결코 유쾌하고 신이 나는 상황은 아니다. 그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난 또 어떻게 다른 모습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이 지금은 조금 궁금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도 없는 저에게 신경과 전공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잘하는 것도 없이 4년 내내 속만 썩이는 저를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고 배려해주신 여러 스승님들께 어림없는 표현이지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후배전공의에게 당부 한마디

■ 김 치 현 (성균관의대 신경과학교실)



먼저 전공의 수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저의 가족과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님을 비롯한 신경과 식구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대한신경과학회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런 글

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신 학회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다지 모범적인 전공의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이런 자리에 글을 쓸 만큼 글솜씨가 좋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생활을 조금 더 일찍 경험한 선배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후배들이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전공의 기간을 보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수련을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입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수련기간 중 99%의 시간과 정성을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건강은 수면부족, 불규칙한 식사, 음주, 흡연 속에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얻게된다는 것은 의사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 1년차 들어올 때에 비해 3년차 초에 체중이 15kg 증가했고 고지혈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1년차 때 입던 바지들을 입을 수가 없게 되었고 허리띠까지 모두 새로 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인지 정도의 양쪽 무릎 퇴행관절염이 왔고 거기에 더해서 한쪽의 무릎연골 손상으로 결국은 관절경수술을 받았습니다. 비단 저뿐 아니라 의국의 선배배들에게도 여러가지 건강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는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병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몇 차례 있

었습니다. 막연하게 건강문제는 4, 50대는 되어야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에 소홀하기가 쉽지만, 저는 20대 후반을 거쳐 30대가 되는 전공의 수련기간은 분명히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쉽게는 아침 식사는 하기 힘들시더라도 점심은 꼭 챙겨드십시오. 일이 좀 쌓여 있더라도 10분만 투자해서 식사를 제 시간에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신호가 오면 혼자서 진단하고 참고 지내지 마시고 꼭 해당파트의 진찰과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은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특권을 충분히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오버해서 검사를 받아 보십시오. 결과가 정상이면 마음 편히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혹시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행운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자신의 건강에는 도저히 투자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본인이 평생 주치의가 되어서 돌보아야 할 가족들의 건강이라도 챙겨주십시오. 이 글을 읽으시는 전공의들의 부모님 연세는 대부분 5, 60대 일 것입니다. 외래진료를 보신 전공의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 많은 환자들에게서 뇌졸중뿐 아니라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퇴행관절염 등이 발생하고 발견됩니다. 많은 환자들의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하고 문제목록(problem lists)을 작성하면서도 부모님의 것은 한 번 적어 보셨는지요? 저는 1년차 때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입원하시고, 3년차 때 어머니께서 뇌경색이 생기시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의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제 일에만 집중하고 가족에게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어지간히 불편하지 않으시면 바쁘게 일하는 자식에게 해가 될까봐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환자들에게 하는 만큼만이라도 불편한 곳은 없는지 여쭙어보시고 정식으로 차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꼭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되돌아보면 전공의 1년차는 제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장 수면이 너무 부족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고, 모든 일들은 모르는 것 투성이고 절대 실수를 하면 안되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하다보니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어떤 일, 신경을 써서 해야하는 일이 하나라도 더 생기는 것이 싫어서 일을 하면서 마주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도 불친절했고 상처도 많이 주었습니다. 타과에서 환자를 좀 봐달라는 의뢰가 오면 어떻게든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무시하고 무시하면서도 저 스스로 타과에 또 많은 부탁을 했고 그 중에는 타과나 타부서에서 보면 너무 기본적인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3, 4년차가 되어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보니 그 때 제가 했던 행동과 말들이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년차가 되어서 보니 병원의 일들 중 많은 부분이 그런 상호의뢰와 교류를 통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훨씬 부드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너무 힘들고 고되더라도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친절한 자세를 가지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도 당연한 깨달음이지만 병원에는 저와 같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기사, 행정직, 의료보조원까지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임무를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제가 저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의사니까 모든 중요한 일은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분들이 하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되고 다른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각자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모두가 환자의 건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를 도와주기 위해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하고 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주위에 의사 가운을 입지 않으신 분들도 보면서 저분들이 없으면 내 일이 얼마나 힘들어 질까, 과연 병원이 잘 돌아갈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도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언급할 부분은 진단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것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모두가 각자의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태도는 많이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나마 4년 동안 진료를 하

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많이 실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전공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환자를 보다가 보면 뇌졸중, 간질과 같이 흔한 질환들은 많이 접하게 되고 이런 비슷한 패턴의 환자가 오면 쉽게 진단하고 해결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익숙한 패턴을 벗어난 환자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고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하거나, 어떻게든 자기가 익숙한 패턴에 끼워 넣어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밀고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는 약간의 경험으로 우쭐해진 상태의 전공의들은 종종 충분한 고민도 없이 자신이 잘 모르는 환자에게 신경과민이나 과질이라는 진단을 쉽게 내리기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꼭 기본적인 신경계질환 환자의 접근 세 단계를 적용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1. 정말 신경계의 이상이 발생한 환자인가? (혹 내과나 정신과 계통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아닌가?)
2. 그렇다면 병변의 위치는 어디인가? (예, 대뇌, 소뇌/뇌간, 척수, 말초신경, 근육 등) 혹은 어떤 계통의 이상인가? (예, 운동, 감각, 의식과 인지능력, 뇌척수액 등)
3. 질환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능한 모든 원인을 열 가지 이상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근거를 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혈관성, 퇴행성, 염증성, 면역학적, 독성, 내분비 및 대사성, 영양학적, 외상성, 발작성, 종양 등)

위의 단계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진단과 그에 따른 근거를 나열하려는 노력을 한 후에 선배 전공의나 교수님의 교정을 받고, 여기에 더해서 책, 논문,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쌓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경험을 쌓는다면 4년 뒤에는 훌륭한 임상 의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좋은 한 사람의 신경과 의사를 만들기 위하여 본인의 경험과 지식뿐 아니라 조건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신 여러 교수님,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신경과 수련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남겨둔 전공의 후배 여러분에게도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장의 수련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목표를 세우고 순간순간 남들과는 다른 1%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이 길을 많이 배우고 또 가르치고 나누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보람된 전공의 기간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HOT ISSUE

# 아세아-오세아니아 임상신경생리학술대회

■ 이 광 우 (2009 AOCCN조직위원장)

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지난 2009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웨라톤-워커힐 컨벤션홀에서 4차 아세아-오세아니아 임상신경생리학술대회(2009 AOCCN)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금번 개최한 제4차 2009 AOCCN

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37개국에서 약 700여명이 참가하여 임상신경생리 분야의 주요 문제를 토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회원 간에 서로의 우정을 다지는 매우 유익한 한 마당의 잔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국제학술대회를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자학회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아세아-오세아니아 임상신경생리학술대회(AOCCN)”는 아세아-오세아니아 지역의 국제학술대회로서 세계임상신경생리연맹(IFCN)과의 협조 하에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지역 국제학술대회입니다. 1996년 중국 베이징에서 제 1차 AOCCN이 개최한 이후 필리핀 마닐라(2차 AOCCN), 태국 치앙마이(3차 AOCCN)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AOCCN은 세계임상신경생리연맹(IFCN)이 주관하는 세계학술대회가 4년마다 개최되고 그 사이에 유럽, 아시아-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지역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의 성격으로 해당 지역 국가 회원들 간의 학술적 정책적 상호교류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 제4차 서울 2009 AOCCN도 “AOCCN in Cultural Variety & Momentum of Revival”라는 테마로 회원들 간의 다양한 문화를 응집시켜 재도약의 발판

을 마련하자는 기치를 표방하였습니다.

2005년 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제4차 아세아-오세아니아 임상신경생리학술대회(2009 AOCCN) 서울 개최가 확정된 후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임원진은 4년 동안 거의 모든 역량을 2009 AOCCN에 집중하였습니다.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전반적인 운영을 맡을 행사 대행회사를 선정하였으며, 이어 홍보를 위한 첫 걸음으로 2009 AOCCN 홈페이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2009 AOCCN에서 제일 중요한 학술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하여 학술위원장은 국내 각 분야 전문 학술위원을 선임하여 학술위원회를 결성하고 학술 업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술위원회는 임상신경생리 분야를 총 망라할 수 있는 토픽을 정하면서 아세아-오세아니아 지역 내의 전문 교수 및 세계 임상신경생리연맹(IFCN) 석학들을 선별하였습니다. 2009 AOCCN 자체가 아세아-오세아니아 지역 회원들의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며 국가 간의 우호증진을 강화한다는 정신에 부응하여 가능하면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학술대회에는 이들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상호 발전적 교류를 시도하고자 하였고, 2009 AOCCN 프로그램에도 이들 각국의 전문 교수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세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대표 또는 중심교수들을 학술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2009 AOCCN에 대한 각 국의 인식이 매우 우호적이었음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AOCCN 국제학술대회 참가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지만, 특히 아세아 저개발국가의 참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한 등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조직위원회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세아 지역의 경제 수준이 구미 여러 국가들에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므로 많은

젊은 참가자들은 2009 AOCCN에 참가하기를 원하지만 참가가 쉽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들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외 젊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등록비를 면제하고(220\$ USD), 일정 금액의 여행보조금(500\$ USD)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 지급(travel award) 대상자 60여명을 처음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 참가자들이 이 정도의 재정적 도움으로 서울 2009 AOCCN에 참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한 파키스탄 젊은 참가자는 700\$ USD에 상당하는 지원을 제공받았음에도 참가비용이 부족하여 추가로 500 \$ USD을 더 지원받음으로써 겨우 학술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50여년 전 전쟁으로 생계조차 어려웠던 우리의 사정을 생각하면 가능하면 더 많은 많은 저개발국 젊은 참가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아직도 가슴이 찡합니다.

이와 같이 저개발국 참가자들에게 적지만 매우 필요한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세계임상신경생리연맹(IFCN)의 재정적, 학술적, 인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IFCN은 2009 AOCCN 서울대회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60,000\$ USD을 지원하였고,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IFCN 임원진인 석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09 AOCCN의 위상을 향상시켰으며,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초청비용을 사양하면서 저개발국 젊은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더구나 2009 AOCCN 국제 학술회의 초록집을 권위 있는 IFCN 공식잡지인 임상신경생리 학회지(J Clin Neurophysio) 부록으로 출간하여 주는 간접적 특혜를 베풀어 학술회의 권위를 높였음은 물론, 초록집 발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IFCN을 통한 이런 긴요한 지원이 없었다면 과연 2009 AOCCN이 우리가 예상한 것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을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2009 AOCCN 학술회의의 마지막 날 오후에 학술회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알차고 보람 있게 성공리에 종료되었다는 만족한 표정으로 300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폐회식(closing ceremony) 장에 모였습니다. 폐회식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한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우수 논

문 발표와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울 관광프로그램은 많은 외국 참가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제공하는 기회였습니다. 학술상 시상 계획에 따라 6명의 우수 구연발표자와 9명의 우수 포스터발표자에 대한 상장(certificate)과 상금(300\$ USD) 수여가 있었습니다. 각 국의 젊은 참가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승리와 만족의 표정을 지었고 동료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외국 수상자들은 우리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귀국한 뒤에는 제4차 아세아-오세아니아 서울 학술대회(2009 Seoul AOCCN)에서 우수 논문발표 상장과 상금을 수상하였던 자신의 귀중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가슴 깊이 귀하게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차기 AOCCN 개최지를 발표하고 이번에 서울 AOCCN 조직위원회에서 제정한 대회기를 전달할 때에는 모든 흥분이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폐회식이 끝난 다음의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한 서울시내 관광프로그램도 한국을 알리는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무료 서울시내 관광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와 다이나믹 서울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쁜 학술 프로그램과 경제적 여건으로 관광의 기회를 계획하지 못하였던 동남아 젊은 참가자들이 잘 정리된 서울의 멋을 눈으로 만끽하고 태권도 시범 등의 체험을 통하여 한국의 힘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을 마친 많은 참가자들의 표정에서 서울학술회에 참가하여 학술적인 많은 것을 배웠고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다는 흐뭇한 감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09 AOCCN 서울학술회를 통하여 임상신경생리 분야의 세계 석학들과 긴밀한 교류를 맺으며,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학술적 정책적 위상을 인지시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얻은 중요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세아-오세아니아 지역의 11개 국가 대표임원들을 2009 AOCCN 조직위원회의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에 포함시키고 연자, 좌장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학술회의에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지역대표자회의(delegate meeting)에서는 아세아-오세아니아 지역 임상신경생리 분야의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모든 대표임원들이 자연스럽게 2009 AOCCN의 프로그램과 진행이 역대 학술회에 비교할 때 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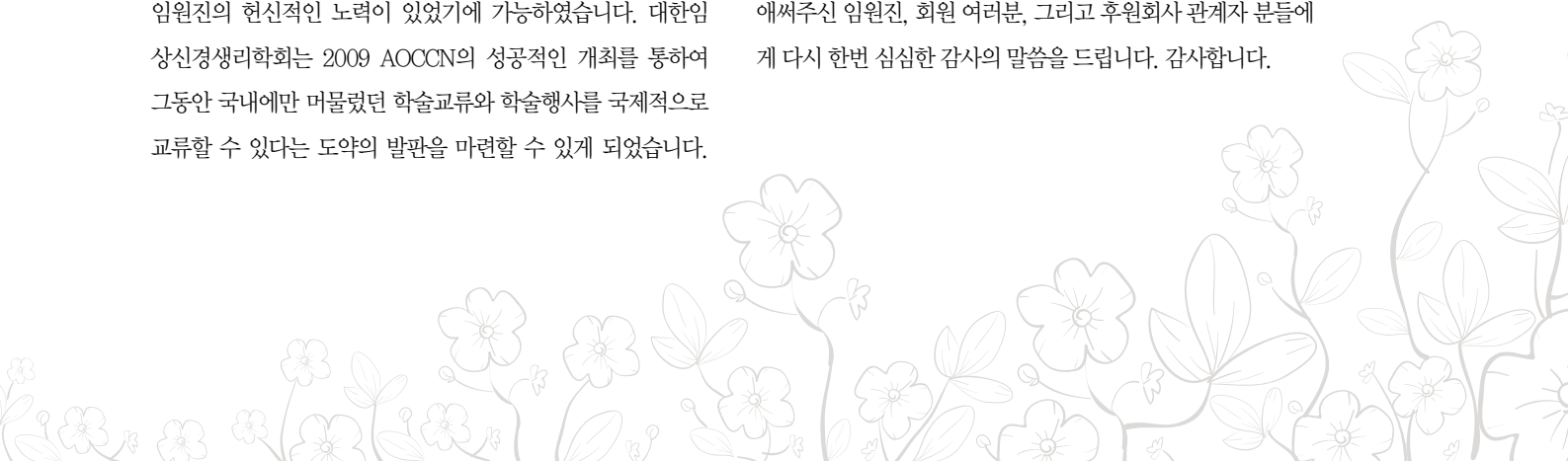


히 훌륭하였음을 이구동성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본인이 만장일치로 향후 4년 동안 아세아-오세아니아 지역(Asian Oceanian Chapter)을 이끌어갈 회장에 선출된 것도 2009 AOCCN 서울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노력에 대한 대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6년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가 창립한 지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갓 10년이 지난 연료를 지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가 이렇듯 2009 AOCCN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에는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회원은 물론이고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위원회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는 2009 AOCCN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그동안 국내에만 머물렀던 학술교류와 학술행사를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 AOCCN을 성공적으로 이끈 저력과 패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는 미주, 유럽 지역의 임상신경생리학회와도 활발히 교류하며 세계임상신경생리학계에도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제4차 아세아-오세아니아 임상신경생리학회(2005 AOCCN)를 유치한 후 늘 노심초사하며 걱정하였던 국제학술대회를 성공리에 종결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이는 결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지난 3~4년 동안 성심껏 노력하고, 세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발로 뛰어다니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동안 몰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임원진, 회원 여러분, 그리고 후원회사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수면무호흡학회를 마치고

■ 홍 승 봉 (2009 세계수면무호흡학회 학술위원장)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 성균관의대 신경과학교실



▶ Opening ceremony 중 북 연주

## 고심 끝에 한국 수면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 신청서 제출

3년 전 봄 세계적인 수면의학자인 Stanford Sleep Center의 Dr. Guilleminault로부터 제9차 세계수면무호흡학회(2009 World Congress on Sleep Apnea, WCSA)의 개최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한국도 한번 시도하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왔다. 자연스럽게 신경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내과에서 수면의학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여러 진료과가 모두 참여하는 수면학회가 없었다. 다만 신경과 전문 의가 주로 모이는 대한수면연구학회가 있었고, 정신과에는 대한수면의학회와 한국수면학회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이비인후과에는 연구회만 있었다. 이 중에 신경과 의사가 주 회원인 대한수면연구학회의 회원 규모가 가장 커서 개최 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다.

세계수면무호흡학회 개최에 찬성, 반대 의견들이 대립되었다. 찬성하는 쪽은 힘들겠지만 세계학회를 개최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면의학을 활성화하고 훨씬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반대하는 쪽은 우리나라 수면의학

의 역사가 짧아서 전체 회원수가 많지 않으며, 사용하는 약물이 별로 없고, 세계수면학회의 주 sponsor는 수면무호흡 치료기 nasal CPAP(상기도 양압기)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nasal CPAP의 치료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10억 이상 되는 개최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지만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낙후된 수면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의견을 모아서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

면의학자들의 이력서와 업적을 첨부하여 개최 신청서를 세계수면무호흡학회 사무처에 제출하였다. 그 후 방문 실사 등 여러 차례 회의 끝에 2009년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09WCSA 조직위원회 구성 및 대한수면학회 창립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였다. 이비인후과 이철희 교수가 조직위원장이 되었고, 내가 학술위원장, 정신과 홍승철 교수가 사무총장, 내과 신철 교수가 전시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신경과 김주한 교수와 정신과 이정희 교수는 부위원장에 위촉되었다. 조직위원장은 전체적인 학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회를 매달 개최하며, 사무총장은 국내, 국외에 학회 홍보를 주로 맡고, 학술위원장인 나는 전체 학술대회 프로그램 기획, 심포지엄 결정, 연자 선정, 초록 및 책자 등 가장 많은 업무를 맡게 되었다. 전시위원장은 major sponsor 회사들을 접촉하여 fund raising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정하였다. 또한 WCSA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관

하는 국내 신경과, 정신과,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를 통합하는 수면학회의 필요성에 동감하여 2006년에 대한수면학회(The Korean Society of Sleep Medicine)를 창립하였다. 초대 회장에 신경과 김주한 교수가 취임하였고, 나는 2009년 WCSA 개최 때까지 세계수면무호흡학회 조직위원회와 대한수면학회의 학술위원장을 겸하기로 하였다.

### 학술 프로그램 기획 및 연자 선정

당연히 학술위원회의 일이 가장 많아서 신경과 윤창호 교수를 학술간사로 임명하고 12명의 신경과, 정신과,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전문의들을 학술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학술대회 날짜는 국내, 국외적으로 수면 관련 학회와 겹치지 않고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날 중에 신경과, 정신과,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의 큰 학술대회와 겹치지 않게 하여 2009년 3월 26-28일로 결정하였다. 이후 조직위원회를 매달 1회씩 열기로 결정하였다. 조직위원회 몇 일 전에 대개 학술위원회가 열렸는데 보통 11시 넘어서 끝나곤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전 대회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여러 관련 진료과의 전문의, 전임의, 연구원, 교육생 등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main 학회 전날 만나질 Educational Workshop을 신설하였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Meet the professor session도 추가하였다. 또한 학술 대회의 흥미를 더욱 진작하기 위하여 Pros and cons session을 만들어서 대립되는 의견을 학술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전세계적으로 연자(speakers)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호주, 중동 등에서 골고루 연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고, 우선 약 2배수로 연자들을 선정한 후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된 연자들의 최근 학술 업적을 Pub Med를 통하여 조사하여 최종 연자를 결정하였다. 총 100여 명의 해외 연자들이 초청되어 수면무호흡의 세계적인 대가들은 거의 모두 참석하였으며 국내 연자들과 함께 25개의 up-to-date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열었다. 해외 연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왔냐고 놀라기도 하였다.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찬사는 너무 들어서 귀가 멍할 지경이었다. 여러 진료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한 결과였다.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여한 윤창호 학술간사를 비롯하여 모든 학술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 성공적인 개최

많은 수면의학 관련 의사, 연구자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개최 결정 후 거의 모든 수면관련 학회(세계규모의 수면학회 2회 참석, 아시아수면학회, 미국수면학회, 유럽수면학회, 일본수면학회, 한일 수면심포지엄 등 총 20회 이상 국외 홍보)에 참석하여 2009 WCSA 개최를 홍보하고 참석을 독려하였다. 또한 학회개최 약 1년 전부터 국내에서 여러 진료과의 자문위원(약 300명 정도)을 선정하고 위촉하여 홍보와 학회참석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학회사무를 총괄해 주는 Professional Congress Office (PCO)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및 학회의 성격 및 주요인물에 대한 파악 등을 통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세계학회 참여 시 사무국의 팀장과 수석팀원이 함께 참석하여 홍보 함으로써 학회의 홍보를 극대화함, 참석 당시 한복을 입고 부스에서 안내 및 홍보를 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음).

학회 스폰서 모집 역시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학회 관련 메인 스폰서 이외에 가능한 한 많은 의료 관련 회사의 리스트를 만들고 조직위원들이 분담하여 직접 접촉하였다(처음부터 수락하지 않은 곳도 10회 이상 만나고 전화해서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조직위원간의 유대관계 및 사무국과의 긴밀한 관계도 성공적인 학회를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학회 회장단과의 긴밀한 관계 또한 중요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세계 6대륙의 50여 개국에서 1,500명 이상이 참석하여 가장 많은 참석자와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400여 개의 초록이 접수되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면무호흡 연구를 접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

더욱이 KOEX 컨벤션센터는 공간이 매우 넓고, 햇살이 유리창으로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세계학회를 여는 데 최상의 장소였다. 국내의 학회 등록자 수는 신경과, 정신과, 이비인후과가 각각 약 150명, 내과, 치과가 각 약 30명 순이었다. 세계수면무호흡학회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학회로 평가하였고, 2013년 세계수면의학회(World Association of Sleep Medicine)의 서울 개최를 강력하게 권하였다.

### 앞으로 더 준비해야할 점

국내 신경과 의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계학회에서 강의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세계 만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과의 각 전문 분





▶ Gala dinner 후 주요 연자들과의 사진 (화살표: 필자)

야별로 국외 학자들과 교류를 넓히고 강화하는 것이 세계학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하다. 또한 강의, 좌장 및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영어로 발표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학문 특히 의학의 globalization(세계화)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대한신경과학회에도 영어로 발표하는 심포지엄과 구연을 만들고, 학회 차원에서 회원들의 영어발표(English presentation)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 신경과와 수면무호흡의 중요성

폐쇄성수면무호흡(Obstructive Sleep Apnea: 수면 한 시간에 무호흡-저호흡이 5회 이상 발생하는 현상)은 우리나라 성인의 약 25%에서 관찰되는 매우 흔한 수면장애이다. 특히 신경계 질환(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신경퇴행병, 근육질환 등)에서는 50% 이상에서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이 발견된다. 수면중호흡장애(Sleep Disordered Breathing, SDB)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간 졸음, 피로, 인지기능장애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키고,

뇌졸중, 심혈관질환 발생률을 유의하게 높인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OSA 환자들 특히 기존에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5~10년 생존율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이것이 신경과 의사들이 수면무호흡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치료해야 하는 이유이다.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사건수면, 일주기리듬장애 등의 수면장애(Sleep disorders)는 그 유병률이 약 30% 이상에 달하며 특히 신경과 환자 2~3명 중 한 명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 이제 수면력(Sleep history)의 청취는 신경학적 진찰과 함께 모든 신경계 환자들에게서 얻어야 하는 systemic review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끝으로 신경과 의사들이 우리나라 수면의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수면병원 과장님과 중견 신경과 선생님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신경과 전공의 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정기능 연구의 개척자 바라니

■ 박 지 욱 (제주 박지욱신경과의원)

신경과를 빛낸 인물들을 소개하는 박지욱 선생님의 NeurOdyssey는 계속 연재됩니다



로베르트 바라니는 1876년에 헝가리 유대인의 후손으로 비엔나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골결핵을 앓으면서 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었고 동시에 후유증으로 얻은 무릎 관절의 강직(ankylosis)으로 평생 장애를 입었다. 비

엔나대학교를 졸업한 후 당시의 유행대로 외국에 나가 선진 의학의 문물을 접하기 위해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하이델베르크에서 크래펠린(Emil Kraepelin)의 정신-신경병 클리닉에서 신경질환에 눈을 떠 학생 시절 프로이트의 영향으로 생긴 정신 의학자의 꿈을 접었다. 하지만 비엔나로 돌아와서는 외과의로 수련을 받았고, 1903년부터는 저명한 아담 폴리츠(Adam Politzer)교수의 비엔나 대학교 귓병 클리닉에서 이과학자(otologist)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클리닉에서는 귀를 진찰하기 위해 미리 귀를 세척(ear syringing)하였는데 여기서 바라니는 특이한 현상을 관찰하였다. 외이도 세척시에는 환자를 앉힌 채 체온에 가까운 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만일 이를 어기면 환자들이 심한 어지럼증, 안진, 구토로 고생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바라니가 세척하던 환자가 물이 너무 차다고 호소하자 실수로 뜨거운 물을 사용된 일이 있었다. 환자가 심한 어지럼과 안진을 보였는데 바라니는 이전의 찬 물에서 보이던 것과 정 반대 방향의 안진이 나온 것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반고리관의 내림프(endolymph)가 외이도의 온도변화에 반응하여 순환한다는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냉-온수를 이용하여 수평반고리관을 선

적으로 자극하는 검사법을 개발하여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도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caloric test이다. caloric 은 열(熱)을 뜻한다. 1905년에 이를 학회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바라니 이전에도 전정기관에 관한 연구자들은 있었다. 프랑스의 뇌연구자 플로렌스(Marie-Jean-Pierre Flourens)는 비둘기의 반고리관을 파괴하는 실험을 통해 수평 반고리관이 망가지면 수평으로 맴돌고, 수직반고리관을 망가뜨린 비둘기는 위아래로 빙빙 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정신병 환자를 구토와 안진이 나올 때까지 뽕뽕이를 돌리면(?) 이내 고분고분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프라하의 푸리킨예(Jan Evangelista Purkyně)는 회전운동이 뇌를 직접 자극하여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믿었다. 프랑스의 임상 의사 메이니에르(Prosper Ménière)는 현훈이 소뇌질환에서만 가능하다는 종전의 믿음을 깨고 반고리관의 증상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선구자들의 연구들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의 전정기능 연구를 하고, 주관적인 어지럼증을 냉-온수 검사라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바라니는 “전정기능의 생리-병리학적 업적”으로 1915년 10월에 1914년도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지명되었다.

당시의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으로, 바라니는 러시아군의 포로로 투르크스탄의 수용소에 잡혀있던 신세였다. 그는 신체장애로 군에 면제되었지만 스스로 입대하여 군의관으로 복무 중 1915년 4월에 러시아군에 항복하는 바람에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스웨덴의 카를 왕자가 중재에 나서 러시아 차르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1916년 수상식에 참가하였다.

수상 후 비엔나로 돌아온 바라니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론 공적의 중요한 부분들이 동료과학자들의 연구를 표절하거나 혹은 그들의 공로를 일부러 은폐하여 자신의 것인 양 발표했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하는 수 없이 1917년에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의 이비인후과 과장 자리를 수락하여 스웨덴으로 떠나버린다. 학문적인 망명이랄할 스웨덴에서의 말년은 그와 가족들에게 힘들었다. 그들은 늘 비엔나를 그리워했고, 휴가는 오스트리아에서 보내었다. 냉랭한 성격이라 친구도 별로 없었고 스웨덴 의사들을 믿지도 못해 고혈압을 앓는 자신을 본인이 직접 치료하기도 했다. 말년에는 악성고혈압의 결과로 생긴 수 차례의 뇌출혈로 언어장애와 팔다리의 마비, 시상성신경통증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 남은 손가락의 힘을 이용해 타이프라이터로 과학 논문을 써내려갔다.

1936년 그의 60회 생일을 기념하여 4월 22일에 열릴 국제 학술대회를 며칠 앞둔 4월 8일에 급사하는 것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였다.

시신은 화장되어 스톡홀름의 화장장에 묻혀 영원히 사랑받는 고향 비엔나로 돌아가지 못했다.

#### 참고문헌

- Presentation Speech for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1914, announced on October 29, 1915.
- Nobel Lecture, September 11, 1916.
- Biography.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1914 . The Nobel Foundation, 1914.
- Robert W Baloh, Charles Skinner Hallpike and the beginnings of neurotology. Neurology;54:2138-2146, 2000.
- JMS Pearce. Marie-Jean-Pierre-Flourens(1794-1867) and Cortical Localization.Eur Neuro :61:311-314, 2009.
- Robert W Baloh, Robert Bárány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his discovery of the caloric reaction. Neurology;58:1094-1099, 2002.
- Encyclopaedia Britannica Online
- Wikipedia
- 노벨 재단. 당신에게 노벨상을 수여합니다. 바다출판사, 2007.



Robert Bárány(1876-1936)





# 2009년 통합학술대회 계획과 이모저모

대한신경과학회가 학문적인 측면뿐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여 어느 국제적인 학회에도 손색이 없는 학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신경과학회의 모든 회원님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회원 수와 발표연제 규모로 보아 본 학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08년도 부산 Bexco 학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학술대회공간이 잘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진들은 2009년도 대한신경과학회 통합학술대회가 학술교류 및 회원간 만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산 킨텍스(Kintex)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학술대회를 아래의 일정에 따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과 숙박시설이 다소 원활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학술대회 진행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미 이곳은 국제학술대회와 국내외 의학 관련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기에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생각합니다.

■ 김 승 현 (한양의대 신경과학교실)

대한신경과학회 학술이사

## 2009년도 통합학술대회 안내

- 일시 : 2009년 10월 8일(목) ~ 11일(일)
- 장소 : 일산 Kintex
- 주제 : Harmony and Globalization
- 초록접수 : 2009년 4월 1일 ~ 7월 31일
- 사전등록 및 접수 : 신경과 홈페이지 참조
- 세부일정 :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곧 학술대회 안내문을 우송할 계획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armony and Globalization”이라는 주제 하에 대한신경과학회와 자학회 및 인접학회와의 학문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2009년도 대한신경과학회 통합학술대회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학술대회는 4일간에 걸쳐 진행하며 제 1일(10월 8일, 목요일)과 제4일째(10월 11일, 일요일)에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신경과 전공의 및 전문의와 인접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소홀해왔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개념정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2일째와 3일째에는 심포지엄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금요일에는 이사장 초청 만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저명한 연자를 초청하여 plenary lecture와 parallel symposium을 구성하여 명실공히 국제적인 학회로서 손색이 없도록 다양한 주제로 구성할 것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구연발표는 전공의 발표, 일반 발표, 영어발표로 진행하며 포스터발표는 2일간에 걸쳐 분야별로 주제를 발표하고 각 분야별로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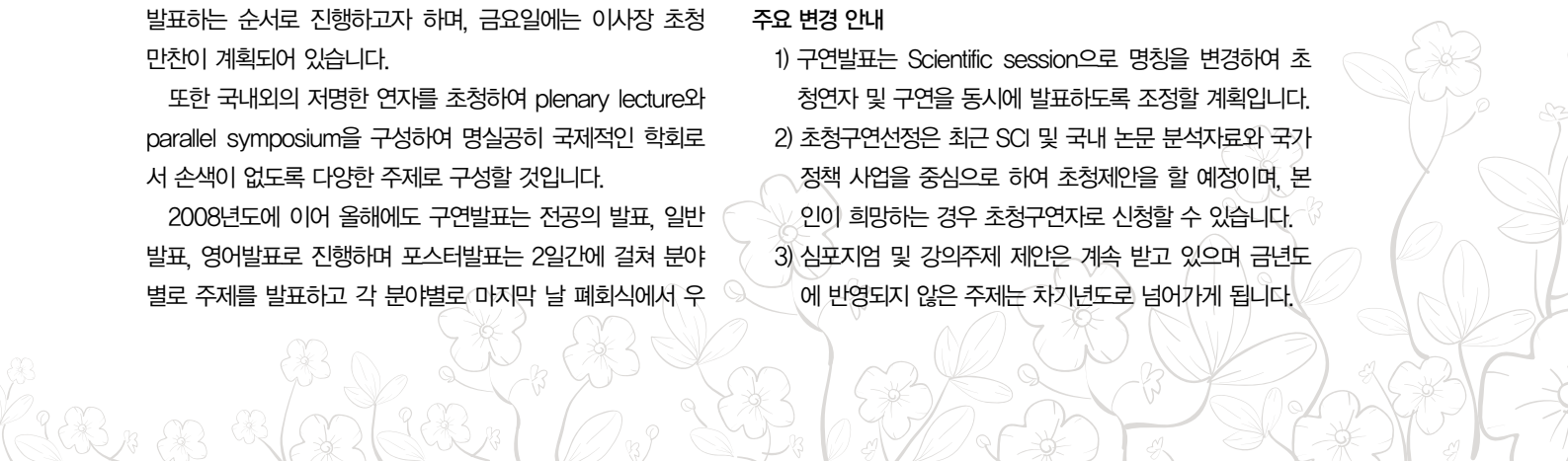
수발표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 통합학술대회 일정 및 계획안 (2009년 10월 8일 ~ 11일, 목 ~ 토)

- Educational program I, II (목요일, 일요일)
- 신경과 전공의 및 인접분야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목요일)
- 개원의 및 신경과 전공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workshop (일요일)
- Workshops (EEG, EMG, NCV, TMS, EP, TCD,)
- Morning lectures I ~ VI (금, 토)
- Evening lectures I ~ IX (목, 금, 토)
- Satellite symposium I ~ VI (목, 금, 토) 주 후원회사
- Parallel symposium I ~ IV (금, 토)
- Korea-Japan Symposium (금)
- Plenary lectures I, II (금, 토)
- Oral presentation (일반, 전공의, 영어)
- Poster presentation

## 주요 변경 안내

- 1) 구연발표는 Scientific session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초청연자 및 구연을 동시에 발표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 2) 초청구연선정은 최근 SCI 및 국내 논문 분석자료와 국가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초청제안을 할 예정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초청구연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심포지엄 및 강의주제 제안은 계속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주제는 차기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 각 위원회별 활동

## ● 고시위원회

### 1. 2009년도 하계 문제은행 정리 작업

- 일시: 2009년 7월 15일(수) ~ 17일(금)
- 장소: 양평화리조트
- 방식: 고시문제의 분류 방식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분야를 반영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새로운 분류 방식에 따라 문제를 정리할 예정. 특히 신경학 총론, 수면장애, 두통 및 통증, 신경안과 및 이과학, 치매 및 행동신경학 등을 기존의 분류에서 새롭게 독립시켜 현실에 맞게 정리할 예정.

### 2. 하계 전문의 문제 출제회의

- 2008년도보다 많은 198명의 신경과 전문의에게 문제출제를 의뢰함. 새로운 문제 양식인 R 형 문제 및 신규 증례에 대한 출제 의뢰를 포함하여 7월3일까지 취합할 예정.

### 3. CPX 모의시험 생략

- 고시위원회 회의에서 금년부터는 하계에 시행되었던 CPX 모의시험은 생략하기로 함. 신경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도입되었던 CPX 문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년까지 하계에 시행하였으나 이제 어느 정도 CPX 시험에 대해서 알려진 상태로 보고 이제 생략해도 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금년부터는 생략하기로 하였음.

### 4. 가을철 추계고시 워크숍을 예정함

- 일시: 2009년 9월 25일경
- 내용: 구두시험(oral test) 출제 및 평가에 대한 workshop

### 5. 2010년도 신경과 전문의고시 수험생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

- (1) 2010년도 전문의고시에서는 1차 필기시험을 오전에 끝내고 당일 오후 4시경(예정) 일차고사장장에서 가까운 곳(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에서 2차시험 중 슬라이드 실물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수련과장 회의 및 신경과학회 평의회 승인 사항). 따라서 1차시험 준비시 그림 및 슬라이드에 관련한 학습도 함께 하기 바람.
- (2) 이틀에 걸쳐 보던 2, 3차시험은 하루에 실시하며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동영상시험을 치른 후 구술시험과 CPX를 치를 예정. 장소는 삼성서울병원.

## ● 기획위원회

1. 신경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에 화신한 내용
2.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한방에 따른 문제점 논의
  - 기획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개원의협의회 추천위원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과 신경과학회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로 함.
  - 한방에서 뇌졸중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할 문제 및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 보험위원회

### 1. 신경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에 화신한 내용

- a. 불합리한 급여기준 관련 회신
  - 보 건 복 지 가 족 부-SSRI, 염 산 셀 레 길 린 (Selegiline hydorchloride), 신항정신약물(atypical antipsychotics)인 Quetiapine
  - 대한의사협회- Argatoban 주사제, SSRI 및 SNRI계 신항우울제, Aricept, Gabapentin, Pregabalin, Tetrabenazine, Quetiapine, Quetiapine
- b.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 감시(너-681)"관련 마취과, 신경외과 확대 관련 반대의견 회신
- c. "행위료로 보상된 별도보상 치료재료에 대한 검토요청" 관련 회신
- d. 희귀난치성질환의 신경과 분류 등록 기준 작성 회신(147개 항목)
- e. 우울증치료제(SSRI제제)급여기준 확대 관련 수련병원 과장에 게 학회 의견 전달

### 2. 신경계 검사 관련 학회 회원의 건의 사항

- 검사 수가의 검사 질 관리 등 타과에서의 신경계 검사에서 부실한 검사(판독하지 않고, 검사만) 진행으로 신경과에 미치는 영향 등

### 3. 보험관련 참석 회의

2009.02.03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회: 민양기, 이준홍, 정지향

2009.02.18 임상전문가 조정패널 회의: 김영인  
 2009.02.14~15 상대가치워크숍: 김영인  
 2009.02.18 2009년 제1차 임상전문가조정패널회의자료: 김영인  
 2009.04.27 신 DRG시범사업 관련 학회 연석회의: 민양기  
 2009.05.23 보험이사연석회의: 김영인  
 2009.05.24 임상보험의학학회 심포지엄: 오건세

## ● 수련위원회

### 1. 신입전공의 입문교육

- 2009년 신경과를 새로 시작하는 전공의 들을 위한 입문 교육을 2009년 2월 20 ~ 21일에 걸쳐 대전 아드리야호텔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등 학회 임원진과 신입 전공의 100명 (2009년 신입 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절교육, 의료사고 등 교양교육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2. 수련과장회의

- 관례적으로 4월에 실시하는 수련과장회의를 금년에는 2009년 신입전공의 입문교육과 병행 개최하였습니다. 과장회의 후 신입전공의들과 만찬을 같이 하며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 3. 2009년 인서비스시험실시

-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2009년 인서비스시험을 이대목동병원 등 전국 5개 시험장에서 2009년 5월 30일(토)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래 인서비스시험은 6월 첫째 주에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은 현충일인 관계로 1주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험문제 출제위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모다 양질의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 4. 수련실태조사

- 2010년 전공의 선발을 위한 수련실태조사가 6월 말~7월 에 있습니다. 금년 수련과장회의와 춘계평의원회의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수련실태평가의 기준기간이 7월 1일 ~ 익년 6월 30일에서 1월 1일 ~ 12월 31일로 바뀔 예정이나 금년에는 이전과 같이 7월 1일 ~ 익년 6월 30일 임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서류심사로 신청 전공의 수가 바뀐 병원 등 일부만 현지조사를 합니다.

## ● 정보위원회

### 1. 국가연구망 (인터넷연계사업) 구축사업

- 대한의학회의 국가연구망을 이용한 의학연구교육 활성화 기획 워크숍에 참석하여 연구망 기반 의학연구와 교육확대 기획의 방향을 제시 및 의견 개진

### 2.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내 웹 포털서비스 콘텐츠 연계 계획

-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대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청한 사항임. 이에 정보위원회에서는 연계 내용은 신경과 증상 및 질병, 신경과 질환 VOD,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로 제한하며 논문 및 초록검색은 검색 범위에 따라 약용 및 오용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유보한 상태임. 연계 방식은 직접수집, I-Frame, URL Link 중 검토하여 URL Link 연계 방식을 선정하였음.

### 3. 일반인을 위한 크로이츠펔트야콥병 인터넷 콘텐츠 개발

- 전염병감시체계(광우병) 구축사업의 일환. 일반인들에게 신경계 전염병인 크로이츠펔트야콥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염병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기초 사업으로 대한신경과학회 홈페이지의 의학정보란에 크로이츠펔트야콥병 코너를 개설하기로 함.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으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임.

### 4. 초록집, 보수교육 파일의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 관련사이트 (종합병원, 개인병원 및 교수홈페이지) 재조사 및 보완, 대한노인 신경의학회 배너 추가, 회원정보 수정작업(수련병원명만 정리)

## ● 편집위원회

### 1. JCN의 PubMed Central 등재 준비

- second stage-sample test 통과함  
 - PMC agreement 작성, banner 제작, JCN 파일 uploading

### 2. JCN 저자 incentive - PubMed Central 등재 확정 이후 중단



**3. JCN 초청 중설**

- 2008년 12월호부터 2009년 12월호까지 매 호 평균 2편씩 게재 예정

**4. JCN의 증례보고**

- 게재율 20% 이하
- 매 호 2편씩 게재(2009년만 한시적으로 3편씩 게재)

**5. 국문학회지 27권 2호부터 중설 원고 다시 게재****6. 학회지 선별 배부- E메일을 통해 선별 조사 후 원하지 않는 경우 발송하지 않을 예정****7. 2009년 학술대회 편집위원회 workshop 주제**

- 좋은 figure, table, 동영상 작성법

**8. JCN citation**

JCN은 2010년에 처음으로 Impact factor를 받게 됩니다. Impact factor는 2007년과 2008년에 JCN에 게재한 논문이 2009년 한 해 동안 SCI 잡지에서 몇 번 인용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2007년과 2008년 동안 JCN에 게재한 논문 편수가 72편이고, 2009년 한 해 동안 SCI 잡지에 인용한 JCN 논문 편수(2007년과 2008년)가 72편이면 impact factor가 1.0이 됩니다.

처음 받게 되는 impact factor가 JCN의 앞날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회에서는 회원들의 citation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itation 해주시는 회원들께도 그 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께서 SCI 논문을 내실 때 2007년과 2008년 JCN에 실렸던 논문을 한번 확인하시고 관계가 있는 논문은 꼭 citation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홍보위원회****1. 대중강연용 강의 자료 제작**

대한신경과학회 홍보위원회에서는 일반 대중강의용 슬라이드를 공모 제작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일반 대중을 위한 강의에 사용하였던 강의 파일,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 주십시오. 신경과 영역의 어떤 질환도 가능합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는 회원님들께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이벤트를 시행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신경과 질환에 대국민 이해를 도와서 신경과 환자 수요를 증대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국민 홍보를 위한 노력에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홍보위원회 워크숍**

대한신경과학회 홍보위원회는 대중강연용 강의자료 구축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개정된 신경과 홍보책자 보완 등을 위해 2009년 6월 4째 주 홍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려 합니다.

홍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대국민 신경과 홍보활동 강화**

홍보위원회에서는 신경과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신경과 질환에 대한 일반대중 대상의 강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지원하는 건강관련 행사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4. 개정 보완된 신경과 홍보책자에 보내 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홍보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지부 동정

## 강원지부

회 장 이상무 (한림의대)

##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7년
- 회원수 30명
- 장·단기계획 연 3회의 학술대회 개최와 인적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간단한 소개 강원도 신경과 친목도모 및 최신 신경과학 경향을 습득하기 위한 모임.

## ◎ 학술대회 일정

1. 2009년도 제2회 강원지회 학술대회
  - 일시 2009년 7월 4일 오후 5시

- 장소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휘닉스볼룸

## • 내용

- 1) 오후 5시: 문준식 선생님 (해분리병원)
  - 강의: 자율신경계 질환의 진단적 접근
- 2) 오후 6시: 이지용교수 / 천정민 전공의(원주기독병원)
  - 증례: 부부관계 중 발생한 두통을 주소로 내원한 44세 여자

## 대구경북지부

회 장 박성파 (경북의대)

##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3년 1월
- 회원수 139명(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 장·단기계획 지역사회에 신경학 분야 의료를 담당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학회가 된다. 신경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집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회원간의 교류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신장시킴.
- 간단한 소개 대구경북지역의 신경학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연 4회 집담회를 하고 있음.

## ◎ 학술대회 일정

## 1. 3월 학술집담회

- 일시 2009년 3월 14일 토요일 17:30~20:00

- 장소 구미순천향병원 1층 상설교육관

- 제목 1) 신경과학의 역사 - 박영춘 원장님

- 2) Alcohol and Epilepsy - 천안순천향병원 박형국

## 2. 6월 학술집담회

- 일시 2009년 6월 13일 토요일 18:00~21:00

- 장소 파티마병원 대강당

- 제목 1) 한국에서의 APOE와 신경퇴행성질환과의 관계 - 대구가톨릭대학 권오대
- 2) 증례토의 - 파티마병원 김태완

## 부산경남지부

회 장 김상호 (동아의대)

##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2년
- 회원수 200여명
- 장·단기계획 대학병원 위주의 모임에서 봉직의와 개원의가 함께 동참하는 모임으로 운영하고, 연 4회 정도의 학술대회 및 집담회를 계획하여 시행할 예정임. 회원간의 상호친목과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예정

## ◎ 학술대회 일정

1. 부산·경남신경과지회 2009년도 춘계심포지엄
  - : 총 80여명의 지부 회원들이 참석하여서 풍성한 지회 심포지엄 모임이 되었습니다.
  - 일시 3월 28일(토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 • 일정

|                                         |                                                            |
|-----------------------------------------|------------------------------------------------------------|
| 2:30~2:50                               | Registry                                                   |
| 2:50~3:00                               | Opening Remark<br>(부산경남신경과지회장 김상호 교수)                      |
| 1부: Update in Neurology 좌장: 경상대의 임병훈 교수 |                                                            |
| 3:00~3:20                               | Recent update in Parkinson's disease<br>(동아대학교 신경과 천상명 교수) |
| 3:20~3:40                               | Recent update in Stroke<br>(부산대학교 신경과 박경필 교수)              |
| 3:40~4:00                               | Recent update in Sleep<br>(부산대학교 신경과 조재욱 교수)               |
| 2부: 신경영역의 초음파 좌장: 동아의대 김재우 교수           |                                                            |
| 4:20~5:20                               | 경두개 도플러<br>(원광대학교 신경과 김요식 교수)                              |
| 5:30~6:30                               | 경동맥 초음파<br>(충남대학교 신경과 김대현 교수)                              |
| 6:30                                    | Closing & Dinner                                           |

## 영호남지부

회 장 조기현 (전남의대)  
이사장 정대수 (부산의대)

## 2. 부산경남신경과지회 2009년도 상반기 정기집담회를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 일시 2009년 5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일정 병원 Tour 및 식사: 18:30~19:20  
특강: 19:20~20:40
- 주제 Hot issue in peripheral nerve disease  
- 강의 1: "Metabolic syndrome as one of

the possible cause of idiopathic neuropathies" 인제의대 배 종석 교수

- 강의 2: "Nuclear abnormalities in skeletal muscle of AD-EDMD (autosomal dominant Emery-Dreifuss muscular dystrophy) and LGMD1B (limb-girdle muscular dystrophy type 1B)" 부산의대 박영은 교수

##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85년
- 회원수 약 400명
- 장·단기계획 지속적으로 심포지엄을 1년에 두 번씩 개최하여 중요한 신경학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와 토의를 통한 전공의 교육과 학문적 교류에 힘쓸 것이며,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한 친목회를 유지할 계획이다.
- 간단한 소개 1985년 창립 이래로 매년 4-6회의 정기적인 학술집담회를 가졌는데 임상신경학 분야의 최신 지견에 대한 강의와 증례 토의를 통하여 신경학의 이해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996년 이후에는 학술집담회를 심포지엄으로 전환하여 1년에 두 번씩 개최하고

있으며 중요한 신경학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와 토의를 갖고 있다. 학술집담회를 통한 학술적 교류 외에 회원들의 경조사에 마음을 같이하고 있으며 1년에 1차례, 학술집담회를 마치고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한 갖고 있다.

##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2009년 대한신경과 영호남학회 추계학술대회
- 주제 Recent update in neurology
- 일시 2009년 11월
- 장소 부산
- 주최 대한신경과 영호남학회

## 중부지부

회 장 오건세 (을지의대)

## ◎ 지부 현황

- 회장 오건세(을지대학병원)
- 총무 김용덕(건양대학병원)
- 간사 이보람(을지대학병원)
- 학술 손은희(충남대학병원)
- 고문 이상수(충북대학병원)  
김재일(단국대학병원)  
김재문(충남대학병원)
- 장·단기계획 충청남북도, 대전지역 신경과 회원의 학문 발전과 친목을 도모한다.

## ◎ 학술대회 일정

- ※ 학술활동: 분기별로 개최(3월, 6월, 9월, 12월)
- 1분기 (2009, 4, 6): 강의 및 증례토의  
- 천안순천향대학 병원 신경과 양광익교수 강의  
- 제목: sleep disorder
- ※ 중부지회 Workshop
- 목적 대전 충청지역 전공의 수련을 활성화시키

고 실제 환자를 보는 데 필요한 술기를 익히기 위함.

- 방법 각 section chief이 주관하여 분기별로 시행, 2년에 한 회기
- 1) 2009, 2, 13; stroke 분야 workshop 개최  
장소: 충남대학교 보은홀  
강사: 김제교수, 이수주교수, 이상봉교수, 오형근교수, 김대현교수, 이기욱교수
- 2) 2009, 5, 18; 말초신경계 분야 workshop 개최  
장소: 충북대병원  
강사: 이상수교수, 손은희교수, 전종은교수, 나상준교수

- ※ 기타  
이수주교수 연수(2009, 3, 1)  
전종은교수 특강(2009, 5, 15)  
김선희전공의 결혼(2009, 3, 14)



# 자학회 동정

## 대한다발성 경화증연구회

회 장 이광호  
(성균관의대 신경과 )

1. 2009년 Network 사업 연구자 모임이 2009년 1월 19일 대한신경과학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2008년 연구진행을 점검하였고 지역별 연구 책임자 선정 및 2009년 연구계획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2. 2009년 첫 집담회가 2009년 5월 11일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Network 사업 1차년도 결과 발표와 2차년도 계획에 대해 토의하였고, 새로운 연구계획에 대한 발표와 연구과제진행에 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3. 2009년 제5회 심포지엄 및 총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오전에 구연 발표가 있고, 오후에는 대만의 다발성경화

증 전문가가 참여하는 joint conference가 예정되어 있으며 캐나다 Ottawa 대학의 Mark Freedman 교수와 영국 Oxford 대학의 Angella Vincet 교수의 초청강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일시: 2009년 7월 11일 토요일
-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뽀뽀룸
- 초록 마감: 2009년 7월 3일

4. 제 2회 PACRIMS 학회가 2009년 11월 20,21일 양일간 홍콩에서 개최됩니다. 연구회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며 대한신경과학회 회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대한 수면연구학회

회 장 홍승봉  
(성균관의대 신경과 )

대한신경과학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료와 연구에 여념이 없으시지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에 들어서는 느낌이 듭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는 지난 2월 14일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중급 수면다원검사의 워크숍을 성공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수면다원검사의 새로운 판독법을 강의하고 실제 증례를 보여주며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문의, 전공의, 수면검사 기사 등 총 104명이 참석하여 유익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수면무호흡학회에 국내외로 1500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신경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치과에서 수면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두 참여하시고 수면무호흡증의 최신 지견을 배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09년 4월 18~20일에는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들의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면증 인지행동치료의 권위자인 미국의 Dr. Perlis를 모시고 3일간 인지행동치료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신경심리치료사, 전임의 등 60명이 참석하여 자세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제 불면증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2009년 6월 26~27(금, 토)일에는 대한수면연구학회 제6회 정기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이 한양대 HIT 강당에서 열립니다. 수면의학 전반에 걸쳐서 최신 지견과 연구 상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는 신경과 질환(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근육말초신경질환, 두통, 간질 등)에서 50% 이상의 류병률을 보입니다. 이들 신경계 질환을 잘 치료하기 위하여는 수면의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수면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의 선생님, 전임의, 전공의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 대한 근신경질환학회

회 장 김승민  
(연세의대 신경과)

대한근신경질환학회에서 마련한 제3회 근신경계질환 연수강좌를 신경근육접합부질환이란 주제로, 오는 6월 20일 한양대 HIT center에서 개최합니다.

신경근육접합부질환은 신경과 의사가 흔히 접하는 질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속하며 다른 원인과의 감별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질환의 해부학 및 병태생리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식 습득은 실제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학회에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신경

과 전문의로서 신경근육접합부질환 환자를 접하였을 때 진료실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신경근육접합부질환에 관한 내용들을 하루 과정으로 함축하여 연수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예년과 같이 연수강좌는 일방적인 강의 형식만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다 각도의 토의 형태를 취하는 방식으로 택하여 청중의 참여도와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한임상신경 생리학회

회 장 박성호  
(서울의대)

### 1. AOCCN 2009 개최

2009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워커히호텔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임상신경생리학회(AOCCN2009)를 개최되었습니다.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아시아 대양주 지역 11개국 학회 회원은 물론 전세계 임상신경생리학 연구 전문가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임상신경생리학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을 벌였고, 30여 명의 국내외 초청연자들이 기조강연, 심포지엄, 워크숍을 통해 최신 지견과 연구동향을 선보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2.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2009 신입임원진 선임.

– 2009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총회(서울워커히호텔, 4월18일)에서 박성호 전임부회장이 2년 임기의 신입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신입이사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2006.11.1~2009.4.17) 동안 수고하신 김주한 전임회장님과 이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 신입임원 현황

- ▶ 회장 : 박성호(서울의대)
- ▶ 고문 : 이광우(서울의대), 김주한(한양의대)
- ▶ 부회장: 김광국(울산의대), 이동국(대구가톨릭의대), 김재문(충남의대)
- ▶ 감사 : 서만욱(전북의대), 김두웅(서울보훈병원)
- ▶ 총무이사: 김지수(서울의대)
- ▶ 기획이사: 김승현(한양의대)
- ▶ 학술이사: 박수철(연세의대)
- ▶ 편집이사: 김대성(부산의대)

- ▶ 재무이사: 박경석(서울의대)
- ▶ 보험이사: 오건세(대전을지의대)
- ▶ 교육이사: 김명규(전남의대)
- ▶ 홍보이사: 권오현(노원을지의대)
- ▶ 국제이사: 박성파(경북의대)
- ▶ 정보이사: 정재면(서울인제의대)
- ▶ 무임소이사: 손영호(연세의대), 서대원(성균관대의대), 마효일(한림의대), 김요식(원광대의대)
- ▶ 총무간사: 김성민(서울의대)

3.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지 학진 등재후보지로 등재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회장 박성호)의 학회지인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08년도 학술지신규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등재 후보지'로 선정됨으로써 학회지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 결과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지'는 2008년도 1월 이후 발간된 제10권 1호부터 '학진등재후보지'로 인정 받게 되었으며, 향후 2년 연속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될 경우 '학진등재지'로 인정받게 됩니다.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환영합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편집위원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여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김대성 교수(626-813)

Tel. 055-360-2122, Fax. 055-360-2152

E-mail: editorjksn@medimail.co.kr 혹은 dskim@pusan.ac.kr

# 알림란

## 1. 전시회

### ■ 계단 위의 5분 초상화 & 색채심리 그림전



- 일시 : 2009.6.23(화)~30(수)
- 장소 : 반월메디칼타워 계단(2층~11층)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25-2, 반월당역 21, 22번 출구)
- 주최 : 두(頭)신경과의원 (053-252-2225)
- 후원 : 한림기업
- 전시내용 : 인물초상화 200여점, 색채심리미술 100여점
- 전시설명 : 전시장이 평평하고 넓어야 한다는 상식을 뒤엎은 그림전. 15층 빌딩의 계단을 전시장으로 이용한다. 한병인(신경과 전문의) 씨는 색연필로 얼굴의 특징만을 5분만에 그린 200여점의 초상화들을 통해 절제된 실용주의를 표현한다. 천소영(천소영 색채심리연구소 소장)

씨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치료사례들을 연령, 색채, 테마에 따라 12단계로 나누어 100여점을 전시한다. 이 전시회는 환경과 건강을 위해 계단을 이용하자는 메시지도 아울러 전하고 있다.

## 2. 화제의 서적

### ■ 서늘한 광채

#### 뇌과학과 현상학으로 알아본 의식의 해석

- 지 은 이 : 댄 로이드
- 옮긴이 : 강동화
- 펴낸곳 : 위즈덤하우스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의식의 인식처는 과연 뇌인가? 과학적으로 인간의 의식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간의 의식에 관한 이러한 문제를 뇌과학과 현상학으로 풀어나간 책 '서늘한 광채'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강동화 교수가 번역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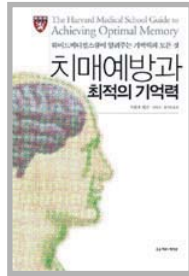
이 책을 집필한 철학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댄 로이드는 의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뇌과학의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한 손에는 현상학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경과학을 들고 '의식의 과학적 이론'을 구축해 나갔다.

특히 이 책이 매력적인 이유는 의식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추리소설의 형식을 따랐다는 점이다. 지도교수의 실종 사건과 의식의 미스터리를 풀어 나가는 젊은 철학자 미란다는 다른 아닌 또 한 사람의 댄 로이드이다. 실제로 저자 자신이 직접 소설의 말미에 등장하여 의식의 비밀을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 미란다가 함께 사건을 해결한다.



# 알림란

## ■ 치매예방과 최적의 기억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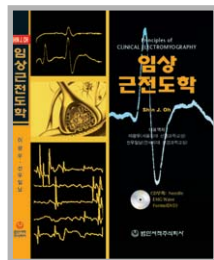


### 치매예방과 최적의 기억력

(Achieving optimal memory by Aaron P. Nelson)

- 옮긴이 : 최경규 정지향
- 펴낸곳 : 조윤커뮤니케이션

## ■ 임상근전도학 원론



- 지은이 : Shin J. Oh
- 대표역자 : 이광우 · 선우일남
- 펴낸곳 : 범한서적(주)

본 [임상근전도학 원론(Principles of Clinical Electromyography)]은 근전도의 기본원리와 기법을 익히고 나아가 이들 원리와 기법을 실제로 임상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임상-근전도 전문의들을 위하여 집필하였다.

1장부터 6장에는 여러 가지 근전도기법의 기본원리, 검사방법, 그리고 임상적 적용방법 등을 다뤘다. 7장부터 15장에는 전체근신경계 질환 35개의 증례에 대하여 임상증상, 근전도 검사 결과, 해석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본 교재에는 근전도 결과와 임상소견의 상호연계에 관한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임상-근전도 전문인들이 근전도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점을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 특징

-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기술
- 최신의 공식의학 용어 적용
- 실제 신경생리검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계 최고의 근전도학 권위자에게 실제로 듣는 듯 명료한 지혜
- 흥미로운 증례를 통해 각 질환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임상적 접근 방식 설명
- 오신중 선생님의 인생의 경험이 녹아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최대의 실제 근전도 자료 동영상 DVD 함께 제공
- 최고급 종이를 사용한 양장본
- 파격적으로 저렴한 책값(25,000원)



# 2009년 1월 원로탐방 박충서 선생님- 바로 잡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불량(不良)하여 녹음기 소리를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편집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재면 교수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후세에 남을 역사는 사소한 일이라도 진실을 바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 기사 중 몇 가지 잘못된 점을 고치려 하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고를 인쇄 전에 검증했어야 하는데 인쇄 전에 나의 이사 때문에 연락이 안 된 탓도 있습니다.”

## 1. 우선 나의 도미시절

Baltimore로 가서 내과 레지던트 1년을 마친 후 메릴랜드대학으로 옮겨서 의과대학 약리학교실에서 1년간 있으면서 약리학, 생화학, 해부학 시험을 여러 차례 치렀던 것입니다. 존스홉킨스가 아닙니다.

## 2. 광주기독병원에서

내려간 그 날 밤 숙식실에서 잤는데 연탄가스 중독이 되어 2일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보니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 그 후 1년간 치료 후에 지팡이를 버리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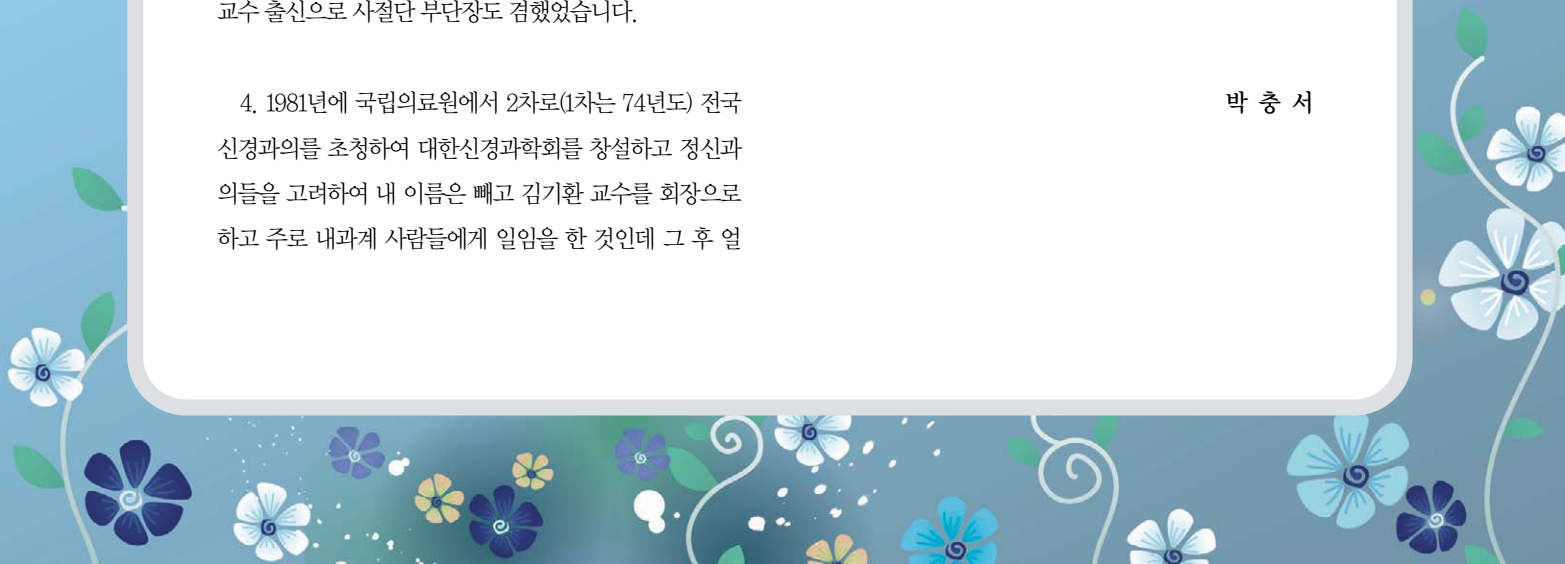
3. 58년 11월에 국립의료원 원장이 신경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인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지 서양사람 교수란 말은 없었습니다. 당시 신경과장은 코펜하겐대학 신경과 교수 출신으로 사절단 부단장도 겸했었습니다.

4. 1981년에 국립의료원에서 2차로(1차는 74년도) 전국 신경과의를 초청하여 대한신경과학회를 창설하고 정신과 의들을 고려하여 내 이름은 빼고 김기환 교수를 회장으로 하고 주로 내과계 사람들에게 일임을 한 것인데 그 후 일

마 안가서 의협을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의협회장이나 각 위원회 회원님들에게 신경과학회 계몽 팸플릿을 돌리면서 방문 진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정신과학회에서 당황한 것입니다.

한편 법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사부를 찾았더니 과장, 국장, 차관 다 만나주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대통령에게 진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사부에서 호출이 와서 가니 진정사건을 나무라면서 연말 국회에 상정하도록 신경과학회가 왜 필요한 지 증거서류를 빨리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전 세계 40여 개국 신경학회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급보를 띄웠고 전부 격려와 함께 답신이 와서 전 세계 신경과학회 일람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국회통과를 자신하고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박 충 서



## 회원동정 경조사

### [ 개원을 축하합니다 ]

|     |       |     |            |
|-----|-------|-----|------------|
| 오세호 | 오즈신경과 | 축개원 | 2009-05-25 |
|-----|-------|-----|------------|

### [ 참가 조의를 포함합니다 ]

|     |          |     |            |
|-----|----------|-----|------------|
| 조용진 | 인제대일산백병원 | 부친상 | 2009-02-09 |
| 신현길 | 신현길신경과   | 부친상 | 2009-02-26 |
| 조현지 | 건국대병원    | 부친상 | 2009-04-01 |

### [ 결혼을 축하합니다 ]

|     |          |     |            |
|-----|----------|-----|------------|
| 김성민 | 관동의대명지병원 | 축결혼 | 2009-03-14 |
| 강봉수 | 서귀포의료원   | 축결혼 | 2009-03-28 |







# 대한신경과학회 제28차 통합학술대회

주제 \_Harmony & Globalization

일시 \_2009. 10. 8(목)~11(일)

장소 \_KINTEX (경기도 고양시)

주최 \_ **대한신경과학회**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28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 The safest & first choice

Reduction rate  
of hemorrhagic risk (vs ASA)

TIM Study<sup>1)</sup> 33% ↓  
TACIP Study<sup>2)</sup> 53% ↓  
TAPIRSS Study<sup>3)</sup> 66% ↓

혈전증 치료제  
**Disgren**<sup>®</sup>

#### Dual mechanism

- Total PAF inhibitor  
(COX 1, ADP, EP, collagen)
- Increase of cAMP

#### Additional effect

- NO increase
- Neuroprotection

## 혈전증 예방 및 치료의 뛰어난 효과!

- $\text{TxA}_2$  억제 및 c-AMP 증가로 우수한 항혈전효과를 나타냅니다.
- NF-kB 억제로 neuroprotection 작용을 나타냅니다.
- NO에 의한 혈관 확장 및 심장보호 효과를 나타냅니다.
- ASA와 비교시 출혈성 합병증이 없어 장기간 복용시 안전합니다.
- 혈액계 부작용, 간독성, 두통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 References

- 1) J.M Cruz-Fernández et al. Eur Heart J 2000;21:457-465 2) Matias-Guiu et al. Stroke. 2003;34:840-848  
3) A. Culebras et al. Neurology 2004;62:1073-1080



**Plavix**<sup>®</sup>  
Clopidogrel 75mg  
Take Protection Further. Today.

# 플라빅스 만이

**7천만명 이상**의 처방경험과<sup>1</sup>  
**10만명 이상**의 임상을 통해,<sup>2</sup>  
**죽상혈전증**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KR CLO 08.03.11

**sanofi aventis**

Because health matters  
판매권 / Copromoted by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번지  
Tel. 02-527-5500 Fax. 02-527-5551

## 플라빅스®정 75밀리그램

■ **원료 의약품 및 그 분량** : 1정 중 주성분 활성수소클로피도그렐염(97.875mg (클로피도그렐로서 75mg)) ■ **효능·효과** : 1)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의 개선 2) 급성관상동맥증후군(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Q파 심근경색 환자)에 있어서, 약물치료 또는 관상동맥치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를 포함하여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의 개선  
■ **장법** : 용량 1)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질환이 있는 환자: 용량의 시작과 관련하여 1일 1회 1정(75mg)을 투여하고 급성관상동맥증후군(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Q파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 1) 약 300mg을 초기 투여하고, 이후에 아스피린 75~325mg과 병행하여 1일 1회 1정(75mg)을 용량의 시작과 관련하여 유지 할당으로 투여, 2) 경구 또는 심정맥 관하에 대한 권장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 **경고** : 1) 미아를 단독 또는 아스피린과 병행 투여시 출혈을 합쳐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의 경우보다 오래 소요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리고, 출혈이 심(출혈부위 또는 지혈시간) 발생할 경우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지도한다. 환자는 수술 계획 전 또는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의사와 치료의사에게 알리어 한다. 2) 혈전성 혈소판기능 이상(저항성 TTP) : 이 약 사용 후에 드물게 TTP가 보고되었으며, 때때로 만/간 사용(2주 이하) 후에도 보고되었다. TTP는 즉시 혈정문헌(출혈, 혈장괴반)과 같은 치료를 요하는 임상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의 상태로 볼소판증, 미소혈관 용혈성 빈혈, 신경학적 소견, 신부전 및 발열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 **금지** :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투여 당시 소화성궤양 또는 두개내 출혈과 같은 병적인 출혈이 있는 환자 3) 중증의 간 손상 환자 4) 수유부 5) 선천적으로 갈락토오스 불내증, 락타아제 결핍증, 또는 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가 있는 환자 (무당 함유제에 해당) ■ **신중투여** : 1) 위장관 출혈 환자 2) 출혈 경향을 가진 병변(궤양 등)이 있는 환자 및 출혈 위험이 증가한 환자 3) 간기능 손상 환자 4) 신기능 손상 환자 5) 급성 뇌졸중 환자 (7일 이내) ■ **이상반응** : 1) 출혈증에 2) 혈액학적 장애(중증구혈소판(무과립구증 등) 3) 위장관 장애(상대, 복부통, 소화불량, 위장염 또는 변비) 4) 발진 및 기타 피부질환 5) 기타 이상반응 ■ **제조원** : 제조원명 Sanofi Pharm. Brack-Meyers Soulik SNC 174 avenue de France, 75013 Paris, France) 제조지: Sanofi Winthrop Industrie (1 rue de la Verger, Antibes et Lagnave, 33665, Cation Blanc Cedex, France) 소분제조지: (주)원도약품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리 3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제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Plavix Global sales IMS Health May 2007. 2. Bharti DL, Topol EJ. Scientific and therapeutic advances in antiplatelet therapy. Nat Rev Drug Discov. 2003; 2: 15-38.

전문약약품



Copromoted by  
**한국 BMS 제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번지  
Tel. 02-3404-1300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 대한신경과학회보

NO. 80 2009. MAY

발행인 | 이 광 우

편집인 | 박 성 호

발행처 | 대한신경과학회

주 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1층 11호

전 화 | (02)737-6530 팩 스 | (02)737-6531 이메일 | [kna@neuro.or.kr](mailto:kna@neuro.or.kr) 홈페이지 | [www.neuro.or.kr](http://www.neuro.or.kr)

디자인·인쇄 | 도서출판 씨아이알 | (02)2275-8603

발행일 | 2009. 5. 30.